



2023 년 6 월 토론토 강림교회

## 속회공과

###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롬 3:21-31)

####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304 장, 구 404 장)
-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6 월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1 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2 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3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4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차별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의'입니다.

####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 1.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러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21-26 절).

##### 1)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21, 22 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21 절은 19-20 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19-20 절은 1:18-3:20 논의에 대한 최종 결론과도 같다. 즉, 21 절의 전환 어구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절망에 빠진 인류를 향해 구원의 소망이 소개된다. 즉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난 것이다.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투'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투'를 목적어적 속격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하는 경우다. 둘째는 주어적 속격으로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으로 번역하는 경우다. 전통적 해석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을 앞에 쓰고 다시 '믿는 모든 자를 위해'라는 어구를 반복해서 쓴다는 점이다. 그래서 최근 많은 학자는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투'를 주어적 속격으로 해석한다.

#### 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생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22-24 절)?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22 절의 '예수님의 신실함'이란, 예수님의 삶과 말씀,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모든 종말적 사건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기초가 되어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23-24 절에서 '의롭다' 하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것을 방증한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 3)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25, 26 절)? **화목제물**

25 절 '화목제물'로 번역된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레위기 16:15 을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피를 '속죄소'(힐라스테리온) 위에 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25 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25 절), 그의 영광을 예수 위에 나타내신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의 '신실함'(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할 뿐 아니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신 것이다.

**나눔 1** 우리는 자기 피를 쏟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 2.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성취됩니다 (27-31 절).

1)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 28 절)?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이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주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율법으로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즉 '예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2)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어떤 방식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29, 30 절)?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29-31 절은 22 절의 모든 믿는 자에 대한 확대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22 절의 모든 믿는 자는 1:16 의 모든 믿는 자와 연결된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29 절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30 절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로 생각하는 할례를 예로 들면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속회공과

### 3) 믿음과 율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31 절)?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사상이다.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주고, 율법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율법이 메시아로 추앙되는 걸 반대한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율법 자체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성도들은 믿음의 법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다.

**나눔 2**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이 바뀝니다. 더는 육체의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참조. 고후 12:9; 갈 6:14; 빌 3:3). 내가 자랑하는 것, 또 우리 공동체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봅시다.

###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저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소서.

공동체 \_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체를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자료제공: 매일성경)

